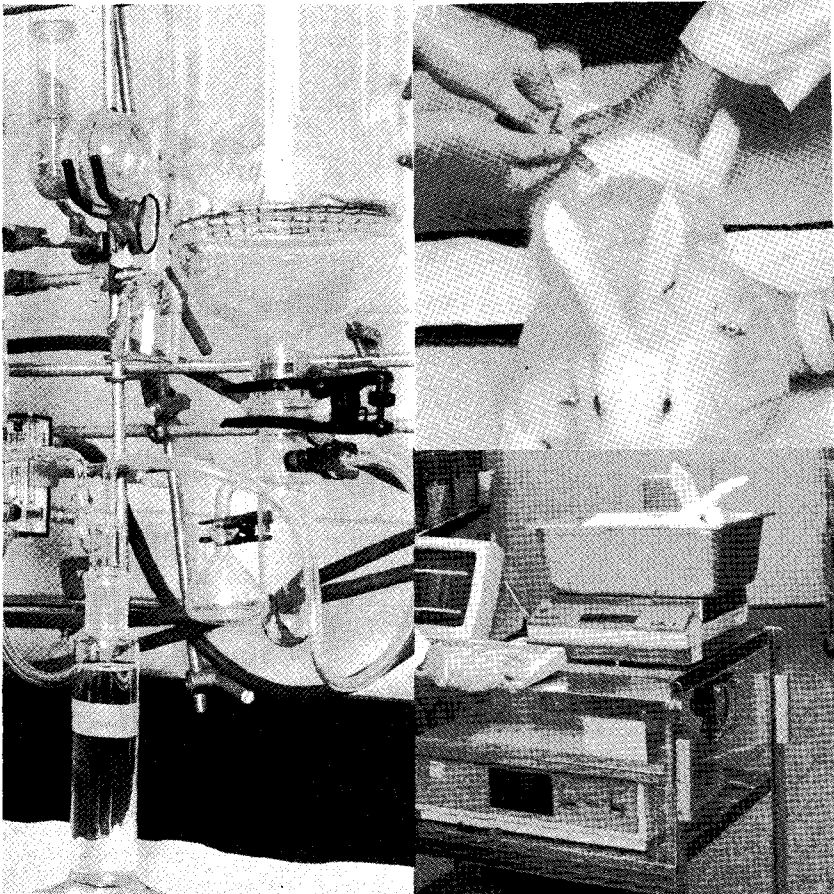


이 달의 초점

무조건 외면하기 보다는 올바른 사용법 계몽해야



◇ 하나의 농약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

現代文明의利器는 잘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문명의 이기중에 하나인 농약도 올바른 사용법 계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유해한 40개 농약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소비자들은 무척이나 쇼킹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물론 농약은 각종 병·해충 및 잡초를 죽이는 물질이므로 전혀 독성이 없을 수는 없으며,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농약 한 품목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세월에 200억원의 경비를 투입해 인체, 환경, 작물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또 화학, 생물, 의학, 약학, 생명공학등 최신 과학이 총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농약은 종합정밀과학의 결정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엄격하고도 정밀한 검토·시험과정을 거쳐 개발된 농약도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살균, 살충, 제초, 독성, 잔류성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약관리분과위원회에서 분야

별로 정밀검토를 거치게 될 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석하는 농약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통과해야만 비로소 선을 보이게 된다.

특히 농약관리분과위원들은 세계 정보에 밝을 뿐 아니라 농약에 관한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도출하는 학자 및 연구관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떤 농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농약업계 종사자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농산물소비자이며 가족과 친지를 갖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문제점이 있는 농약을 도태시키는데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오·남용을 방지하고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는 잘 사용하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오히려 불편함을 주거나 화(禍)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천리길을 단숨에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은 모두가 문명의 총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매년, 소음, 각종 교통사고라는 부작용과 함께 이들 문명의 이기(利器)도 「달리는 흉기」 또는 「날으는 폭탄」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교통수단을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소금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밝혀졌으나 우리 식탁에서 소금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소금 덜먹기 운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제창·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이 각종 생활편리품은 사용할 때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사항을 잘 지켜야만 안전성 및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칼자루는 사용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다.

현대 종합과학의 결정체인 농약도 사용할 때 지켜야할 각종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만 개발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의 진가(眞價)가 나타나게 마련이며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좁은 땅에서 4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도 「춘궁기」나 「보릿고개」니 하는 말들을 잊은 지도 오래다.

그만큼 농업도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그 밑거름의 하나를 차지해 온 것이 농약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윤택해진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量)보다 질(質)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있다. 따라서 깨끗한 농산물을

찾게 되고 일부에서는 농약이 잔류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농약은 이와같은 소비자들의 안전과 사용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독성을 엄격히 구분하여 고독성농약은 수도용에 사용을 금지하고 맹독성농약은 취급, 수송, 사용, 보관등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을 정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법적규제조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어렵게 개발한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농약은 사용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필수 영농자재이다.

세계의 농약산업은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저독성이고 선택성인 농약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어떤 우려는 없는지 판단하여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면하기 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계몽하는데 동참하는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 “보릿고개”나 “춘궁기”니 하는 어려운 시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